

## 대한결핵협회와 현대기아차그룹이 함께하는 결핵퇴치 캠페인



왼쪽은 대한결핵협회 김성규 회장, 오른쪽은 현대기아차 윤여철 부회장

대한결핵협회는 지난 12월 21일 현대기아자동차그룹 양재사옥 대회의실에서 '크리스마스 썸 증정 및 후원 약정식'을 갖고, 연말까지 전임 직원이 동참하는 결핵퇴치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작년에 이어 현대기아차그룹 임직원들이 난치성 결핵 환자 치료비 지원 모금운동, 회사 및 경영진 명의 연하장에 크리스마스

썸 붙이기 및 결핵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 2대를 대한결핵협회에 기증하는 전사적인 캠페인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올해는 임직원들이 보다 손쉽게 모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한결핵협회의 협조로 '결핵퇴치 캠페인 웹사이트'를 개설해 온라인 기부는 물론, 크리스마스 썸이 첨부된 e-카드를 보낼 수 있도록 했다.

현대기아차그룹에서 작년에 이어 협회에 기증한 구급차는 대한결핵협회 산하 복지자의원이 운영하면서 산간오지 방문 검진 및 노숙인 현장진료 등 다양한 결핵 예방활동에 쓰일 예정이다.

이날 약정식에 참석한 현대기아차 윤여철 부회장은 "결핵퇴치를 위한 모금운동에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이 회사와 임직원 모두에게 결핵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결핵협회 김성규 회장은 "결핵퇴치를 위한 사회 각 분야의 노력이 요구되는 이 때 현대기아차그룹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결핵퇴치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화답했다.

## 제60차 대의원총회 개최 및 신입회장 선출

대한결핵협회는 제60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2009년 12월 17(목)일 개최하여 전 서울시 의사회장을 역임한 문영목 후보를 제27대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문영목 신입회장은 43년생으로 서울고와 고려의대를 졸업하고 대한의사협회 의료산업육성 대책위원회 위원장, 제30대 서울시의사회장(2007~2009년), 고대 의대 교우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임기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까지 3년이다.



한편 대의원총회에서는 2009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이 보고되었으며,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승인, 조직개편, 정관개정 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 2010 경인년 시무식 거행

대한결핵협회는 지난 1월 4일(월) 본부 대강당에서 서울, 경인지역 임직원 및 각 시도지부 본부장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2010년 경인년을 힘차게 도약하자는 의미의 시무식을 거행했다. 특히 이날 시무식은 문영목 신입회장의 취임식도 겸해 이루어졌는데, 문영목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협회 비전을 재설정하고 협회가 처한 대내외 환경을 분석하여 실천과 실용의 리더십으로 경영의 효율화를 가져오도록 청지기 정신으로 임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결핵퇴치 2030플랜」을 정부와 함께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고, 더불어 대북지원사업 및 국외 결핵퇴치 사업의 초석을 다져나가며, 협회의 공공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시무식은 문영목 회장이 전 임직원들과 한 명 한 명 악수를 나누는 훈훈한 광경으로 마무리됐다.

